宗 說

대종회에서 처음 열린 고문단 회의

安東權門은 아직 100대 지친(至親: 100촌을 넘지 않는 친족을 일컫는 말)을 넘지 않은 가까운 사이여서 100만 族親 누구를 만나더라도 껴안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사이다.

100만 족친(族親)과 대종회(大宗會)는 고명하신 고문들의 수필지권(手畢之眷: 지극한 사랑, 지극한 보살핌)으로 더 큰 미래를 열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12일 대종회 회의실에서 가진 고문단 회의는 이런 기운이 무르익었다.

권영해(전국방장관), 권재진(전법무장관), 권복경(전 치안본부장), 권계동(전총재대행), 권오흥(국가중요무형문화재), 권찬혁 고문 등 참석하신 고문들께서는 권해옥 회장으로부터 "100만 族親의 단합을 위해서 宗報 發刊을 전성기 시대의 발행부수가 되도록 끌어 올리는 등 종보 활성화로 대종회의 재정을 적자에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전환시키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겠다."고 보고 했다.

참석하신 고문들께서는 보고되는 모든 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가면서까지 의견을 나누면서 깊은 관심을 나타내셨다. 권영길 전국회의원(전민노당대표)과 권경석 전국회의원, 권영성 상임 부회장이 참석하여 고문단 회의가 더 빛났다.

대종회(大宗會)의 정신적(精神的) 지주이신 고문들께선 국가사회를 위해 정진하셨을 때나 노년(老年)을 보내는 지금이나 늘 권문(權門)을 빛내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셨는가하면 오래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시조 태사공을 비롯한 조선(祖先)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는데 평생을 바치시고도 노후를 도회(韜晦: 스스로 학문과 재주를 세상에 숨기고 산다는 말)하게 사시는 우리시대의 최고의 빈빈(彬彬; 빛나고 어지신분들)이시다.

이런 분들이 어렵게 참석하신 자리이니 그 분위기가 고졸했을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선 권웅렬 고문께서 능동장학회(陵洞奬學會)의 장학기금(奬學基金)으로 시가 2억 원짜리 오피스텔 기증을 약속 했다.

정신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제안

지난달 16일 安東에서 열린 安東權氏靑壯年會 定期總會에서도 權門의 위상(位相)을 크게 끌어 올릴 큰 프로젝트가 제시 되었다.

權海玉 會長께서 이날 인사말을 통해 "陵洞齋舍 앞 주차장 자리에 太師公의 정신을 유지 발전시킬 역사관(歷史館)또는 정신문화기념관(學術紀念館)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推進委員會)발족을 주문했었다."

權회장은 "安東靑壯年會를 중심으로 全國推進委員會가 꾸려지면 100만 족친을 대상으로 모금도하고 정부지원도 받아내도록 앞장서 뛰겠으며 그렇게 해도 모자라면 문중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꼭 건립(建立)을 성사시키겠다."면서 구체적(具體的) 추진 계획까지 밝혀 참석한 청장년(靑壯年)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사실 시조(始祖) 태사공의 창의(倡義) 정신을 내려 받고 보학(譜學)정신 등 권문(權門)만이 갖는 독특한 정신문화(精神文化)를 유지 발전시킬 현대식 강의 시설과 지원 시설을 갖춘 장소가 없는 게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삼한갑족(三韓甲族), 팔대반가(八代班家)가의 위상(位相)에 맞도록 이끌었는가. 아니면 소홀했던 가에 대해서는 바로 답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늘 부족하고 아쉽기만 했다.

이번에 權海玉 회장의 제안은 권문(權門)의 천년(千年) 역사(歷史)를 새로 가다듬는 일이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후손(後孫)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위원회(推進委員會)가 발족(發足)되기를 기원해본다.

그리고 이번 시조 태사공 추향제도 대대적으로 많은 후손들이 참석해서 숭조정신을 살리고 100만 족친의 위상을 높이고 자존심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는 기대할 부분이다.

제2차 지역종친회장단 회의

제2차 지역종친회장단 회의가 19일(화) 11시 대종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권영국 옥천종친회장, 권오협 충주종친회장, 권창구 원주종친회장, 권태갑 문경종친회장, 권태복 금천구종친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권오운 사무총장은 대종회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권해옥 회장은 지역종친회가 활성화 되어야 대종회가 발전한다고 말하며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대종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종회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사지국제로 종보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니 지역종친회장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족친들께서 지역 소식을 많이 볼 수 있게 좋은 일이나 사건 등에 대해 기사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9월 22일(금) 대전 뿌리공원에서 개최되는 효문화뿌리축제에 많은 족친들이 참여하기를 요청했고, 특히 오는 12월 6일에 거행되는 태사공 추향제에 지역종친회장단도 대거 참석하기를 당부했다.

이에 지역종친회장단은 종보 지사지국제 활성화 방안, 도종친회 발전 방안, 청장년회와 종친회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一家의 일'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제2차 지역종친회장단 회의

■ 고사성어

難得糊塗(난득호도)

權五澈 〈副正公派 花隱公系 35世 眞虛〉

'難得糊塗'는 곧 중국인의 철학이고 처세술의 '모토'이다. 우리에게도 교훈적인 말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한 번 음미해보자.

정판교(鄭板橋: 1693-1765, 원명 鄭燮, 자 克柔, 호 理庵, 板橋, 강소성 興化人)가 山東에 있는 萊州에있는 봉산(峰山)으로 유람을 갔을때, 기품있는 한 노인의 초가집에서 하룻 밤 묵게 되었다. (노인은 스스로를 '糊涂老人,멍청한 노인'이라고 불렀다.)

그 집에는 평범한 사각 책상과 벼루가 진열되어있었다. 돌의 재질이 부드럽고 또한 정교하게 조각되어있어서, 정판교는 그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번째날 새벽 ,노인은 정판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쓴 뒤 그걸 벼루의 뒤쪽에 새기라고 하였다.

정판교는 즉흥적으로 '難得糊涂(멍청하긴 어렵다)'라고 네 글자를 쓴 뒤, 뒤에다가 后面盖上"康熙秀才 雍正擧人 乾隆進士"(강희제때는 가장낮은 등급의 과거시험을 통과하고, 옹정때는 향시에 급제했고, 건륭제때는 진사해 급제했다.)라고 쓴 낙인을 찍었다.

벼루가 커서인지 공간이 남았고 정판교는 노인에게 남은 공간에 후기를 써달라고 하였다.

노인은 붓을 들고 "得美石難, 得顽石尤難,由美石轉入顽石更難 (이쁜돌을 얻기 어렵고 단단한 돌은 더욱 얻기가 어렵다. 아름다운 돌이 단단한 돌이 되긴 더 어렵다. 즉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우수한 사람이라도 정치적등 방면에서 지조있고, 굳건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 라고쓴 뒤, '他也用一块方印, 字为"院試第一 鄕試第二 殿試第三.' (院試때는 일등하였고 향시 때는 이등하였고 전시때는 삼등을 하였다. 즉 노인은 정판교의 낙인에 대해 노인 스스로도 정판교에게 뒤쳐지지 않는 사람이란걸 보여주는 것임), 정판교는 노인의 낙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

노인이 은거하는 고관 대작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나서 '糊涂老人'에 대해 다시 '聰明難, 糊涂難, 由聰明而轉入糊涂, 更難'(똑똑한 것은 어렵고 , 멍청한 척하는 것도 어렵다.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척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렵다), '放一著, 退一步, 当下心安, 非图後來福報也' (양보하고, 한발짝 물러서면 모든게 편한 한 것을, 그러면 나중에 다 福으로 돌아온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벗이 되어 서로를 늦게 안 것에 대해 한탄하고 문장과 詩에 대해 얘기하고 진실된 친구가 되기로 하였다. 이것에서"難得糊涂"가 유래되었다.

<난득호도>에 대한 설명을 번역한 것이다.

사람은 복잡한 동물이다.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사람을 보면 자신보다 잘난 것 같고, 질투를 하고, 불평을 늘어 놓기도 한다.

그대가 성공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하지만, 또 다른 몇사람들은 뒤에서 안좋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대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대는 화가 날 것이고, 스스로 그게 아니라고 험담하는이들에게 해명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대의 노력을 봤고, 그대의 성공은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대는 그냥 멍청한 사람처럼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신경쓰지 말고 너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다른사람이 뭐라하던 신경쓰지 말고 할 일을 하면된다. 사람들은 그대에 대해 뒤에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대를 질투한다는 걸 곧 자연히 알게되어있다.

社 告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內

1. 권기 1088년 추향제는 역사와 전통을 살려 권문의 대동단결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향사를 거행하고자 하오니 100만 족친은 날씨가 춥고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陰 10月 19日 中丁)
   -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 ○ 참석대상 : 고문단, 회장단, 지역종친회장, 이사, 종무위원, 청장년 회장단, 부녀회장 등
   - ○ 복장은 정장을 해주시고 유건 500개 준비합니다.
   - ○ 大堂會 : 2017년 12월 5일(화) 오후 7시
     - 연락처 : 서울 02-2695-2843~4 / 안동 054-854-2256
2. 宗報 지사 지국 모집
   - ○ 우리 대종회 재정자립을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종보를 직접 운영(발행, 배부)하고자 합니다.
   - ○ 지역종친회장단에서는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지사 지국장을 금년 11월까지 선임해서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보 대금은 연 3만원입니다.

安東權氏 僕射公派 文坦公 宗中 花峯齋 竣工式 案內

安東權氏 文坦公齋室建立委員會

監正公系 委員長 權寧沃

禮賓公系 委員長 權淸一

醴泉君系 委員長 權寧益

齋室建立 小委員

權奇德, 權洙命, 權甲鉉, 權寧根, 權錫鎬, 權赫道

■ 일시: 2017년 10월 8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565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677-1번지)

서안동 IC → 경북도청 방향 → 풍천면사무소 방향 → 신풍2리 마을 → 1km 지점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에서 24km, 승용차 30분 거리

대표 권영옥(010-3728-9799) 총무 권영욱(010-2430-0720)

安東權氏 僕射公派 文坦公 齋室建立委員長 權寧沃